

2015년 2월 23일 새벽말씀

오늘 가장 큰 것이 무엇인고 하니, “감동은 성령의 말이다.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감동은 주의 말씀이다. 선생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감동 받았나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잘못 감동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감동주고 귀신이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꼭 물어봐야 합니다.

“꿈에 선생님이 나타나서 이름을 이렇게 하라 했는데 맞습니까?”

“그래 맞다. 그 이름을 줬다. 내 영에게 물어보니 그렇게 했다고 한다.”

“꿈에 누가 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 내가 나타났다.”

“꿈에 날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 했는데 뭐니까.”

“아, 그거 내가 그렇게 한 일 없어! 아니다. 하지 마!”

이와 같이 늦더라도 내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물어보고 실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동받고 그냥 하지 말고 큰 것은 꼭 물어보라.”

그냥 하게 되면 일을 저지르게 되니까 물어보고 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는 것은 감동의 빛을 받하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압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 감화, 같은 언구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 이렇게 표현하듯이 바로 성령을 신약시대 때도 딱 쪼개서 구분을 못했습니다. 성령 성신, 헛갈리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성신, 성령을 받으라! 신, 하나님의 신을 받으라!

-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매 큰 역사를 일으켜 나갔다고 했습니다 (삿14:6).

-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자와 스스로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 했습니다.

감동된 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더라 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감동되면 하라는 것입니다.

-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막 때려 부수지 않았습니까.

- 사사기 14장 6절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더라 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감동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손에 아무 것도 든 것이 없는데도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힘이 생기기도 능력도 생깁니다. 여러분들, 힘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힘이 생깁니다.

-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기도해 줬더니 다윗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사울 왕이 아팠을 때 기도하니까 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이 쳐들어 올 때 다윗이 때려 죽였습니다.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고 감동되니 수레를 타고 달리는 그 나라 왕 아합보다 더 빨리 궁궐로 달려갔습니다(왕상18:46).

신에 감동되면 부지런해지고 빨라집니다. 감동 안 되면 게으르고 머리가 빨리 안돌아갑니다. 신에 감동되면 머리가 벼룩 벼룩 돌아갑니다. 신에 감동이 안 되니까 빨리 빨리 처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에 감동돼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신의 감동을 안 받고 하니까 무슨 일을 해도 늦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 하려면 신의 감동을 받고 해야 됩니다.

- 에스겔 3장 14절을 보면 “주의 신이 에스겔 자신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의 권능이 힘 있게 감동되었더라” 했습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 가보니 거죽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다 죽은 뼈다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른 뼈다귀들에게 외치니까 다시 살아났더라 했습니다(겔 37장).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육적 부활 말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심령의 부활, 행실의 부활, 새로운 역사의 부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마귀에게 이끌리어 시험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 받아도 마귀에게 끌려가면서 조건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손을 못 대게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성령이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가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성령으로 표현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신경에도 말하고 성경에도 말했지만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하심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엄마처럼 감동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감동의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도 감동을 주시고!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성약은 성신시대입니다. 이렇게 쪼개서 알아야 됩니다.

-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보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인자가 누구니까. 바로 육신을 쓰고 있는 인자, 예수님이 인자가 아니었습니까. 메시아를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거역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백성이 임금을 거역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금의 아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임금은 최종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까지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들의 말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근본자의 말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마가복음 13장 11절은 “그때 말을 하여라. 그러면 성령이 말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누가한테 부딪혔을 때 말 하여라! 그러면 성령이 말할 것이다. 담대히 말하라.” 했습니다.

- 학개서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흥분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되고 감동되고 감동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 누가복음 12장 12절을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그때 가르친다.” 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고 음성이 안 납니다. 음성이 나지만 우리는 못 듣습니다.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령의 음성이나 예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으로 옵니다.

오늘 말씀이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단계로 들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듣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듣는 것입니다. 감동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지요? 감동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 열네 번째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오면 내가 가르친 것이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다시금 내가 생각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선포하니깐, 영계에 선포하니깐 육계에 있는 육인들이 영으로 받고 육에게 전달하니 감동으로 다시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때 그 말씀, 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것.’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한 말씀도 감동되니까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 그 때 그런 말씀을 월명동에서 했어. 어느 집회 때에 했어. 어느 장소에서 했어.” 그러지 않습니까.

-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감동의 신, 성령, 주체 신, 상대 신, 여성 신을 받으라!!

-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오시리라 했습니다.

선생님이 진리의 성령의 신부급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선포하니깐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칙과 이론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축소시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이와 같이 저 하나님의 세계도 이치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특별히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자가 있다 하면 하늘나라에도 여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자가 있다면 하늘나라에도 남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있다, 하늘나라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양빛이 아니고 하늘의 그 말할 수 없는 광채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체 빛을 발하는 빛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물이 있다, 하늘나라도 물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다, 그 세상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속상했다, 하나님의 천주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속상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준다! 영적으로는 진리의 영, 육적으로는 선생님이 진리의 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영이고 너희는 육이다 했습니다. 선생님이 진리를 가지고 와서 외치니까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모두 따라 오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영으로 온 것입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음성이 들려서 “여봐라! 오늘의 설교는 감동의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안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감동이 돼서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쓰는 것입니다.

설교 끝나라 하는 것도 “이제 설교 끝나라.” 그렇게 안 옵니다. 하나님이 설교 끝나라 하면 나에게 감동이 옵니다. 그만 끝나야 되겠다는 감동이 옵니다.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자의로 지금 말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자의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단상 앞에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곧 감동으로 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감동으로 온다.”

선생님이 월남에 있을 때 한번은 감동도 오고, 음성도 들렸습니다. 적을 바로 내 앞에 놓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날 우리 분대원들이 엄청난 사격을 했습니다. 나는 안 쏘려고 옆에다 쏘고 그랬습니다. 탄 데에다 팡팡 쏘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 무기가 제

일 무서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무기는 한방을 쏘면 그 근방이 전멸되는 무기였습니다. M79라고 유탄발사기였습니다. 그것을 쏘면 수류탄 같은 것이 터집니다. 그 때 내가 30발인가 50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쏘았다가는 불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딱 데에다 쏘았습니다. 바위 너머에다 쏘고, 저 너머에다 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옆의 사람들은 막 쏘았습니다.

그 이튿날 시체를 확인하러 갔는데 어디 장소인가를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가던 사람이 바위에 올라갔는데 폭 쓰러졌습니다. 왜 그런가 올라가 보니까 바위 뒤의 큰 나무 뒤에서 그 전날 총을 맞았으나 안 죽은 베트콩이 우리를 쏘 죽이려고 겨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아 이구 나는 죽었구나.’하고 현기증이 나고 앞이 안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이 눈만 내밀고 나를 겨냥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손이 떨려서 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쏘봤자 그는 눈만 내밀고 있기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쏠 수 있다 해도 내가 안 쏘았을 것입니다.

그 때에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이 바위 위에서 죽는다.’

그 때가 스물두 살 때인데 그 바위에서 죽을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났습니다. 다른 말을 안 하고 “사- 랑- 하- 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지금도 머리속에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러 가면 적이 총을 쏘서 맞아 죽는데요. 채는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쏘도 안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총을 맞고 그에게 수류탄을 까 던지면 죽지요.”

내가 자꾸 사랑하러 가면 죽는다고 했을 때에 두 번째 또 소리가 났습니다. “사- 랑- 하- 라!”

그 소리가 들리고, 감동이 확 왔습니다. 그 때, 후닥닥 한 발짝을 뗐을 때 그가 내 여동생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니가 왜 여기 왔느냐.”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내 여동생이 잡혀 온 줄 알았습니다. 북한 계통으로 잡혀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끼어 안고 울면서 40분 동안 텅굴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나고 감동도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났기 때

문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감동되고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고 성령님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는 표구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이 다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음성 들은 것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쳐다보면 그 음성이 날 것입니다. 거기서 “사 랑 하 라”는 음성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듣는데 너희들이 감동받았으면 음성을 들은 것이다 했습니다. 감동으로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못 보니까 녹화돼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동영상 찍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 주니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물이 아니고 화면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제 2의 ‘나’라는 것입니다. 제 2의 선생님입니다.

이와 같이 한 단계 다운되었을 뿐이지 실제 제 2의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왔으면 제 2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라!”

“가 재를 관리하라. 붙잡아줘야 된다.” 이런 감동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므로 즉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정도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 바벨론 왕에게 다니엘을 잘하라, 이렇게 하도록 하라, 네 밑에 두고 길러라 하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밑에 두고 총리 대신을 시키고 엄청난 일을 시켰습니다.

요셉도 바로를 감동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와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감동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 성령에 감동되면 너희가 하늘 보좌를 보기도 하고 그 앉은 자도 보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 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고 신령하니까 밧모섬에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고 거기에 앉은 자를 보았다 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앉으신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가 크게 외치니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 모두 “할렐루야 그러하옵나이다 맞나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이 되어야 멀리 있는 나도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꿈으로 많이 본다고 하는데, 나도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서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막 내 앞에 서로 앉으려고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지요. 내가 물어봅니다.

“너 육의 이름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자기 누구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동의 빛을 발하라!” 입니다. 여러분들, 감동받고 움직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할 때 감동을 받았습니까.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까. 왜 감동을 받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대로 말씀을 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되 말씀을 받은 자가 직접 말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면 감동되는 것입니다. 말을 거부하면 감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악한 자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악한 자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불신이 바로 사탄의 주관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사탄의 마음으로 가지 않고 불신의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감동 받은 대로 안 해서 사고들이 일어난 것이 굉장히 많지요?

선생님도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사람들이 인성으로 안 했습니다. 요즘은 꼭 물어봅니다.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반드시 이야기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고 그러고 결정합니다. 무조

건 안 하면 안 됩니다.

“목회하라. 뭐 하라.” 하고 감동했는데, 주일날 수요일 날 말씀에서 감동했는데, 선생님이 편지로 감동을 시켰는데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성령이 말씀한 것을 안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에 편지를 하다가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지를 했는데 편지가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꼭 오기를 원했는데 편지가 안와서 한번 더 해볼까 했으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편지를 거진 줄였습니다. “내가 바빠서 한 줄만 쓴다. 지금 바쁘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은 대로 열심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편지 속에 보니까 집을 내놓고 다른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보러 온다고 전화가 와서 보러 오라 했더니 강도로 변해서 두드려 패고 칼로 찔렀는데 칼이 부러져서 안 죽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성직을 하는 목사라 돈이 없다.” 했더니 “살려 주겠다. 억울하다. 맞고 끝내자.” 하며 두드려 패고 칼로 찔렀는데 그때에 그 실한 칼이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못 찔렀답니다.

여러분들, 집에 누가 오면 정말로 문단속을 잘하고 혼자 있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감동이 왔는데 감동을 실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남자가 온다고 하니까 무서운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때 성령 엄마가 “애야!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감동을 무시

했던 것입니다. 모르면 무지한 것입니다.

성령 엄마가 “얘야 조심해. 남자 온다. 세상이 험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감동을 받았는데 실행치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감동을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감동받고 실천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되면 역사에서 열심히 뛰고 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축 도>

오늘 감동의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감동은 성령이 특히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도 주시고, 또 시대를 끌고 가는 자를 통해서 감동시킨다 했습니다.

감동 감화를 받은 이들에게 성부와 성령의 역사와, 성자의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